

GROWTH RESEARCH

2025.06.19 (목)

[스킨부스터 산업보고서]

K-스킨부스터, 리뷰란 다음 타자는 누구?

Analyst. 한용희, 진재현



목차

Part 1. 스킨부스터 산업 개요

Part 2. 스킨부스터의 가파른 국내 성장 속도

Part 3. 스킨부스터 해외 확장성 점검

기업분석

바이오펜디엔씨(251120)

바이오비쥬(489460)

Intro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93.2% 증가했다. 이중 피부과 진료 목적만 56.6%이다. K뷰티의 열풍과 함께 높은 피부 개선 효과를 자랑하는 K-미용 시술 체험을 원하는 방한 외국인 환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술 중에서도 스킨부스터는 피부 자체를 탄탄하게 바꾸어 실질적인 노화 및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로 입소문을 타며 소비자 및 의료진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용의료 기업들은 최근 피부 미용 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스킨부스터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현재 **스킨부스터 시장은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의 경우 개화 초기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 기업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Part 1. 스킨부스터 산업 개요

피부에 수분과 영양 공급

스킨부스터(Skin Booster)는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피부 컨디션을 개선하고 윤기와 탄력을 주는 시술이다. 스킨부스터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구성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피층에서 작용되는 스킨부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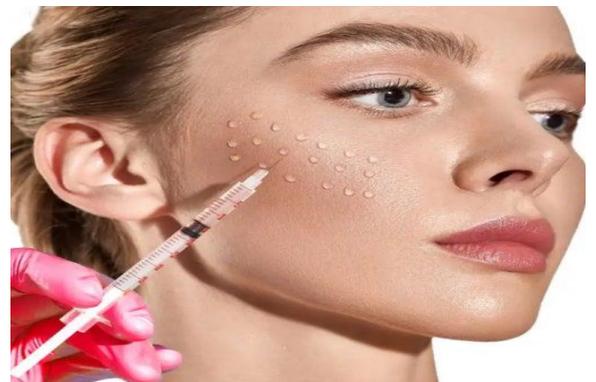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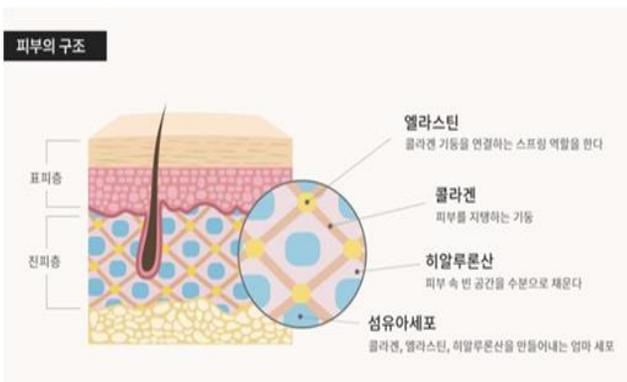
우리의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의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스킨부스터의 작용은 주로 진피층에서 이루어진다. 진피는 크게 세포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로 나뉜다. ECM은 세포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바탕질로,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진피의 대표적인 세포로는 섬유아세포가 있다. **섬유아세포는 ECM 내에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을 생성하여 피부의 구조와 탄력을 유지한다.**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피부 재생 유도

노화는 주로 진피층에서 나타난다. 어린 피부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풍부해 피부가 팽팽하고 매끄러운 반면, 노화가 진행된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어 피부의 탄력이 감소한다. 또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스킨부스터는 진피층의 구성 성분을 직접 주입하거나,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시술은 초미세 바늘을 사용해 피부 표면에 고르게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물광주사, 샷셀주사, 리쥘란힐러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첫 번째 시술 이후 3~5회 정도 반복 시술이 권장되며, 유지관리를 위해 3~6개월에 한번 정도 받게 된다.

피부의 구조

스킨부스터시술



자료 : 뉴트리몰, 그로스리서치

자료 : 그로스리서치

늦은 시장 개화는 곧 높은 성장 잠재력

스킨부스터는 최소 및 비침습 시술에서 필러, 보톡스와 유사한 부류이다. **유독 필러, 보톡스 대비 스킨부스터가 생소한 것은 시장 자체의 늦은 개화에서 비롯된다.** 국내 시장에 PLA(Polylactic Acid) 필러(1999년), 보톡스(2002년)가 일찍 출시된 것과 달리 파마리서치의 PN (Polynucleotide, 연어 DNA 유래) 스킨부스터(2014년)는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다.

근본적인 피부 개선이 주된 포인트

이들 모두 피부 노화 방지라는 공통적 목적이 있지만 세부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필러와 보톡스는 쉽게 설명하면 주름이 있는 피부 아래에 필러 물질 주입 또는 근육 긴장과 같은 인위적 수단을 활용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피부 개선은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스킨부스터는 피부 자체를 탄탄하게 바꾸어 실질적인 노화 및 주름의 개선을 유도한다.** 상당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평이 많지만 그에 버금가는 효과로 입소문을 타며 소비자와 의료진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시장의 급속한 성장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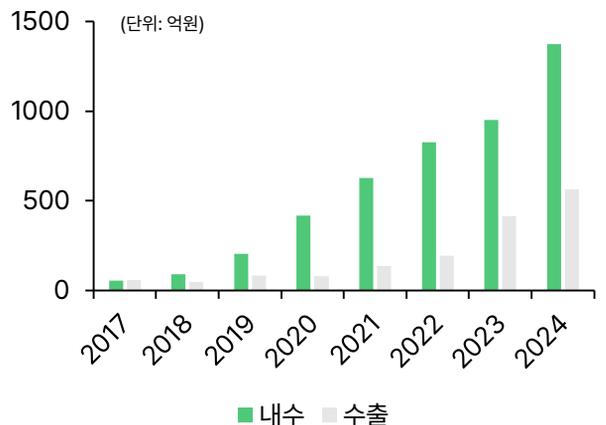
이제 스킨부스터는 피부 미용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술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스킨부스터의 오리지널 제품 회사인 파마리서치는 2014년에 리쥬란을 출시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고, 최근 국내 관련 매출액은 연평균(2019~2024) 46.4%로 내수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3년 9월부터 국내시장에 PN 기반 스킨부스터들이 대거 출시되며 경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을 더욱더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필러, 보톡스, 스킨부스터 비교

종류	필러	보톡스	스킨부스터
기능	꺼져있는 부위에 점성있는 필러액을 주입해 즉각적인 볼륨감 부여	톡신을 주입하여 즉각적으로 피부 표면을 평평하게 확장시켜 주름 개선	영양분을 주입해 미미하지만 실질적인 피부 개선 (잔주름 개선, 흉터 열어짐)
유지 기간	6개월~1년 (국산) 1년~2년(수입)	6개월~1년	1개월 (3회차 이상 시술 시 6개월)

자료 : 그로스리서치

파마리서치 의료기기 매출



자료 : 파마리서치, 그로스리서치

Part 2. 스킨부스터가파른 국내 성장 속도

방한 외국인 환자의 급격한 증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93.2% 증가했다. 이는 2019년 팬데믹 이전 최대치보다 2.3배 증가했으며, 외국인 환자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중국인 환자가 약 70만명으로 60%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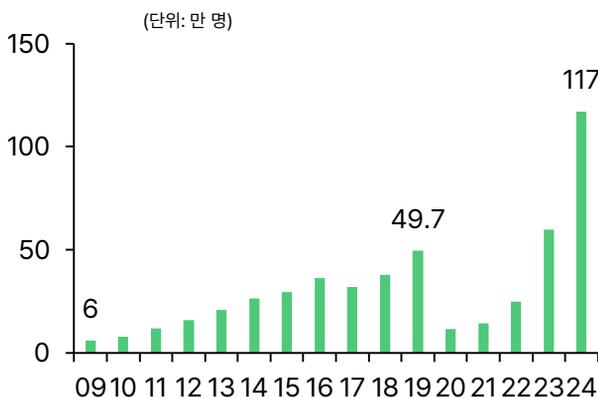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

주요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70.5만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형외과 14만명으로 11.4%를 차지했다. 외국인 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료 이용경험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방문의 주 목적을 '경증치료 및 미용치료'를 응답하는 비중이 6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의 높은 호감도, 피부 시술의 가격 경쟁력, 한류 팬 관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방한 외국인의 시술 수요가 내수 성장에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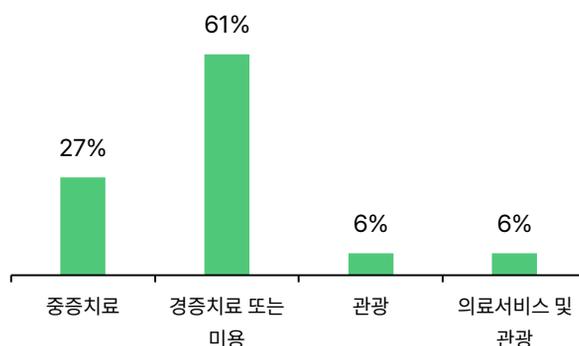
스킨부스터 관련 기업들도 이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다. **특히 파마리서치 회사 내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모션상 파악되는 내수 의료기기 중 외국인 고객의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밝혔다.** 이는 '25년 1분기 관련 내수 매출 4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9% 성장시키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내수 시장에서 스킨부스터의 가파른 수요는 자국민 수요 이외에도 방한 외국인의 수요 증가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 확산과 함께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스킨부스터 시술을 경험한 뒤 향후 자국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된다.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 수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 방문 목적 응답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로스리서치

Part 3. 스킨부스터 해외 확장성 점검

**연평균 8.6%
성장 전망**

Strai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규모는 2025년 17.8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6.9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8.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국내 스킨부스터 제품은 해외 출시 이후 K-뷰티 열풍과 함께 높은 시술 효과로 글로벌 미용의료 시장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
개화 초기로
성장 잠재력 기대**

아직까지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스킨부스터는 독신과 필러처럼 별도의 카테고리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스킨부스터의 시장 침투율은 11%로 시장 개화 초기이다.** 현재 파마리서치가 국내 시장 선점을 토대로 발빠르게 해외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추정 점유율은 2.4%에 불과하며, 성장할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결국 내수 시장에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치열해지면, 잇달아 해외 진출이 이뤄질 것이므로 해외 확장성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격 진입에 앞서
인허가 절차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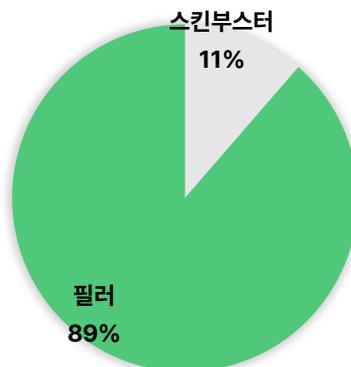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처럼 안정적으로 개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으로 보여진다. **K뷰티의 높은 주목과 별도로 스킨부스터도 미용 의료품에 해당하므로 진출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본격적인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진출이 빠른 리주란은 동남아와 유럽 중심으로 인허가를 받았으며, 중국의 경우 현재 2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시술을 하고 있다. 2등급의 경우 주사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술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따라서 3등급 인허가까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미국 진출이 주요 전략 타겟 지역이 될 것이다.

리주란 구글트렌드 추이



자료 : 구글트렌드

글로벌시장 규모 비중(24F)



자료 : EvaluatePharma, 그로스리서치

최대 시장 미국, 본격 진입이 어려운 상황

K뷰티의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의료기기 영역은 규제 산업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FDA는 스킨부스터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 기기로 허가 받은 사례가 없다.** 따라서 규제기관 승인 시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지난 2023년 5월 애브비의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skinvive'가 피부거칠기 개선 용도로 FDA 허가를 획득하며 발판이 마련되었다. 국내에서는 파마리서치가 스킨부스터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쥘란'의 승인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오리지널의 프리미엄 효과 가능성 존재

초음파 시술의 울썸라, 모노폴라 고주파 시술인 써마지, 특신의 보톡스 등은 피부 미용 시장에서 해당 시술법을 개척한 오리지널 제품이자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오리지널 제품들은 출시 후 20여년이 흘러 유사한 제품들이 출시되더라도 시장지배력이 크다.** 이처럼 여전히 영향력이 높은 중요한 요인은 임상적 근거다. 임상적 근거는 의료기기/의약품 특성상 주요 시술자이자 치료 의사결정권자인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유사제품에 비해 비싼 시술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향후 FDA 승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 남아있는 할주로는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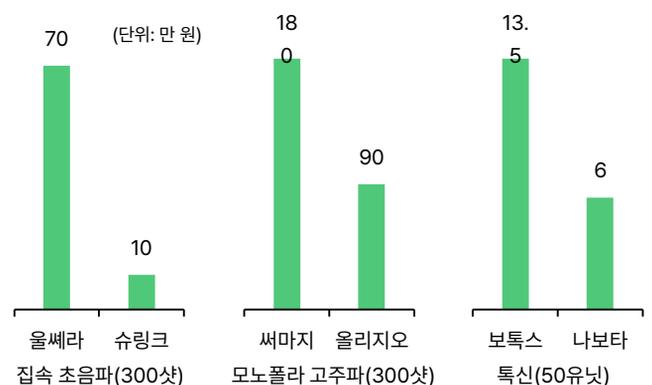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스킨부스터 관련 업체들은 높은 시술 효과로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세 뿐만 아니라 K뷰티 열풍과 함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구조적 초입에 있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다만, 해외 진출과 더불어 시술 인허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리쥘란인허가 현황 및 계획

아시아	유럽 /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중동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2등급) 외 4개 국가 우즈베키스탄(계획) 일본(계획)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호주 스웨덴 외 9개 국가 유럽MDR	칠레 멕시코 미국(계획)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계획) 이크라(계획)

자료 : 파마리서치, 그로스리서치

미용오리지널 및 후발제품 가격



자료 : 그로스리서치

Part 4. 관련 기업

스킨부스터 관련 기업

기업명	기업 개요	시가총액
파마리서치 (214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년 설립, '15년 코스닥 상장 • 주요사업: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연구, 제조 및 판매 영위 • 매출비중: 의약품 14.7%, 의료기기 59.4% 화장품 23.9% 기타 2% • 대표 제품 '리쥘란'은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 점유율 1위 • 2014년 리쥘란을 출시하며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을 개척하며 시장 성장 주도 • 최근 외국인 의료관광 호조의 최대 수혜 	4조 5,559억원
휴젤 (145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년 설립, '15년 코스닥 상장 • 주요사업: 보툴리눔 독신, 필러 등의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영위 • 매출비중: 독신 45% 필러 38.3%, 메디컬 디바이스 1.6%, 코스메틱 14.6% • '22년 고품질 HA 성분의 주사형 제품인 '바이리존 스킨부스터 HA' 출시 • 가교제 결합을 최소화해 분자 간 가격을 충분히 확보해 수분 유지력을 높임 • 미세한 입자 크기와 소프트한 물성으로 시술 시 주입감을 제고 	4조 5,525억원
휴메딕스 (200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년 설립, '14년 코스닥 상장 • 주요사업: 의약품, 건강식품 제조, 도매/의약품 연구개발 • 매출비중: 의료 제품 82.4%, 상품 17.4%, 기타 0.8% • 신개념 스킨부스터 '엘라비에 리투오'를 출시 • '24년 (주)엘앤씨바이오와 제품 분배 계약을 맺고 제품을 출시 	6,210억원
바이오비쥬 (489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설립, '25년 코스닥 상장 • 주요사업: 스킨부스터 제품, 필러 제조/의약품, 화장품 도소매, 무역 영위 • 매출비중: 스킨부스터 29.4%, 필러 23%, 코스메틱 0.1%, 상품 47.5% • 주요 스킨부스터 브랜드 '칸도럽' '아세나르트', 필러 '코레나', '칸도럽' • 중국내 고품질 대비 7~8만원의 낮은 시술가로 제공해 가격 경쟁력 확보 • 글로벌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26년 2공장 증설할 예정 	2,676억원
바이오프디엔씨 (25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설립, '22년 코스닥 상장 • 주요사업: 식물세포 유래 유효 및 약리 물질 연구개발 기업 • 매출비중: GFX(성인인자 원료의 완제품) 48%, 식물 세포(화장품 원료) 25%, 성인인자(스킨부스터, 화장품 원료) 16%, PCX(세포 원료의 완제품) 10% • 자체 구축한 250여 개의 식물세포주로 원하는 유효물질을 설계/생산 • 식물 배양에 기반한 다양한 스킨부스터용 유효 물질을 개발할 잠재력 보유 	1,522억원

자료 : 그로스리서치

바이오비쥬(489460)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도약

투자포인트

중국유통 전문인 청담글로벌자회사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동사는 2018년 설립되어 202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주력 사업은 스킨부스터 및 필러 제품 제조 및 판매다. 매출비중은 스킨부스터 29.4%, 필러 23%, 코스메틱 0.1%, 상품 47.5%다. 주요 주주로는 (주)청담글로벌 외 특수관계인이 75.29%가 있다.

고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토탈 밸류체인 구축과 낮은 시술가로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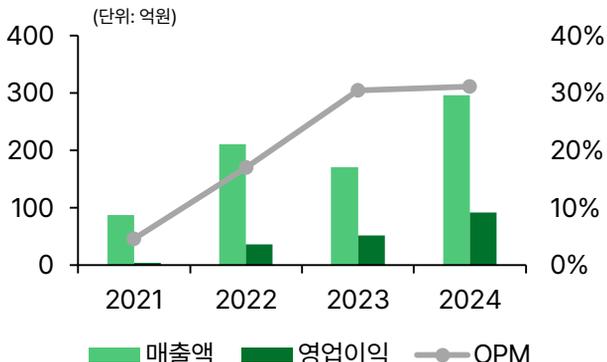
동사는 개발, 생산, 판매 전공정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갖추고 있다. 자체 개발 및 생산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24년 영업이익률은 31%이다. 또한 유통 네트워크 확보 기반으로 직접 수출을 하며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면서 추가 수익 및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주요 브랜드는 스킨부스터 '칸도럽', '아세나르트', 필러 '코레나', '칸도럽'이며, 지난해 화장품 브랜드 'CDL'을 출시했다. **스킨부스터의 경우 중국내 긴유효기간, 지속시간, 가교제 제거 기술을 갖춘 고품질의 제품을 7~8만원의 낮은 시술가로 제공해 타브랜드 대비 가격 경쟁력(평균20~4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확장에 가장 진심인 회사

중국을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까지

동사의 주요 판매 지역은 중국으로, 매출 비중은 '24년 67%이다. **바이오비쥬는 핵심 타깃 시장인 중국 진출과 사업 확장에 있어 모회사인 청담글로벌을 활용하고 있다.** 청담글로벌의 창업주 최석주 대표는 재중동포 3세로, JD닷컴 등 중국 선두 플랫폼 1차 벤더사로서 중국 유통망에서 높은 영향력을 구가하고 있다. 바이오비쥬는 중국 화장품 인증에 많은 경험이 있는 청담글로벌을 통해 중국에 수출 중인 스킨부스터 제품의 중국 위생인증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튀르키예 등 아시아 신규 국가 진출을 시작으로 중동, 유럽으로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26년 2공장 증설할 예정 중이며 생산 CAPA가 기존 264만개에서 약 865만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24년 실적추이



자료 : DART, 그로스리서치

중장기 성장 로드맵



자료 : 바이오비쥬, 그로스리서치

바이오에프디엔씨(251120)

숨겨진 수혜주, 스킨부스터 원료 제조사

투자포인트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 바이오소재 전문 기업

동사는 2005년 설립되어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 바이오소재 전문 기업**으로 주력 사업은 식물세포 유래 유효물질, 약리물질 제조이다. 매출 비중은 GFX(성인인자 원료의 완제품) 48%, 2) 식물 세포(화장품 원료) 25%, 3) 성인인자(스킨부스터 및 화장품 원료) 16%, 4) PCX(식물 세포 원료의 완제품) 10%로 구성된다. 주요 주주로 모상현/정대현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이 31.39%가 있다.

차별화된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자체 구축한 250여 개의 식물세포주로 원하는 유효물질을 설계/생산하고, 배양부터 대량까지 전 과정을 수직계열한 부분이다. 사실상 배양 원가를 제거해 반 복 생산이 가능한 단일세포주 구조로 고정적 성격의 비용 부담 없이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 OPM 30%로 고수익률을 유지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코스메슈티컬,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의 소재로 활용되는 식물세포 유래 유효물질(식물세포주, 성장인자, 펩타이드 등) 과 식물세포 유래 약리물질(항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및 제조한다.

스킨부스터향 매출의 높은 성장 잠재력

성장인자란 세포분열을 촉진하여 세포의 수를 증대하고, 대사를 촉진하여 크기를 증가시 킴으로써 노화방지에 탁월하다. **동사는 성장인자를 활용한 스킨부스터의 원료 및 완제품 (ODM, OEM, 자사브랜드)을 제조 및 판매 중이며, 관련 매출 성장률은 매년 30%이다.** 특히 '25년 1분기 GFX 매출액은 전년 동기 40% 증가한 2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스 킨부스터 시술 수요 증가로 피부과와 성형외과향 앰플(스킨부스터 성격) 매출이 증가한 탓 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 '에이엠메딕스'와 체결한 원료(병풀, PDRN 등) 및 스킨부스 터 공급 계약의 매출이 올해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물 배양에 기반한 다양한 스 킨부스터용 유효 물질을 개발할 잠재력이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아 보인다.**

스킨부스터 원료 및 완제품 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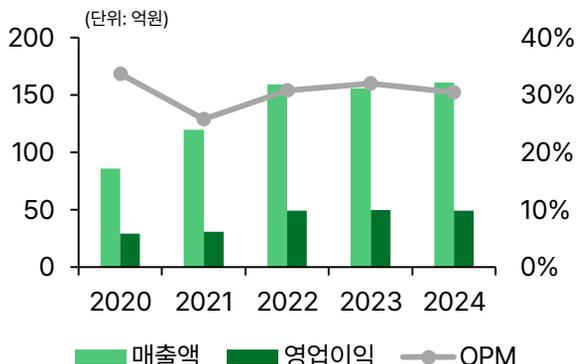
전 과정 수직계열화

스킨부스터향 매출 고성장에 주목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



'20~'24년 실적 추이



자료 : 바이오에프디엔씨, 그로스리서치

자료 : DART, 그로스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그로스리서치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